

## 제외 의미의 5가지 'but + 전치사' 구조 유형 비교\*

안병길 · 김두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경상대학교)

**Ahn, Byeong-kil and Doo-Shick Kim. 2013. A comparison of 5 types of 'but + preposition' structures of exception. *Linguistic Research* 30(2), 379-405.** There are a few expressions which mean "exception" in English; among which are 'but' and 'but for.' The *but*-structures have been analyzed as so-called '*but*-cleft' by Kim(2005), where Kim proposed that <X *but* Y> correlatives are required to satisfy the 3 constraints on their occurrences: the endorsement(E) condition, the semantic condition(S) of 'part-whole'(S) and a structural or functional parallelism(P) condition between X and Y. This study has dual goal: 1) to show that a slightly revised version of the E/S/P-Conditions by Kim's (2005) for <X *but* Y> construction can be applied for the distinction in use between <X *but* Y> construction and its alternative form <X *but* + preposition Y> and 2) to identify five different types of <X *but* + preposition Y> constructions in terms of the optionality/kinds/grammatical statuses of an occurring preposition, the meanings/grammatical statuses of 'but' and the exclusive uses for the <X *but* + preposition Y> structures of 'revised' E/S/P-Conditions.

**Keywords** *but*-correlative constructions, *but*-cleft, endorsement condition, semantic condition, parallelism condition, <X *but* + preposition Y>

### 1. 서론

영어를 위한 비원어민 화자들은 영어사용에 있어서 항상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문법적 범주로 사용될 때 더욱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but' 인데 흔히 등위접속사로 사용되지만 다른 문법적 범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견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과 또한 어떠한 오류나 실수도 오로지 필자들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 (1) a. Tom went to the party, **but** his brother didn't.  
 b. We've had nothing **but** trouble with this car.  
 c. I don't think we will manage it. Still, we can **but** try.  
 d. 'Let's have no **but's**', he said firmly. 'You are coming'.  
 e.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위 예문 (1a)는 'but'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등위접속사로 사용되어 '그러나(and yet)'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1b) 예문은 'but' 다음에 NP가 나타나는 경우로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으며(물론 나중에는 이 but은 논의의 목적상 '상관접속사'로 취급될 것이다), '제외하고(excepting)'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예문 (1c)에서는 'but' 다음에 VP인 try가 나타난 경우로 여기에서 'but'은 부사로 사용되어 영어에서 'only'의 의미로 사용되며, 예문 (1d)의 'but'은 복수형태소 '-s'를 취하고 있기에 명사로 사용되어 '제외(exception)'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1e)의 예문에서는 (1c) 예문처럼 'but' 다음에 VP가 나타났지만 이때 'but'은 유사관계대명사로 'that ~ not'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 (1b)에서 '제외'의 의미를 지니는 but을 전치사로 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전치사로서의 문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 (2) a. I saw no friends **but John** at the party.  
 b. S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but skiing**.  
 c. We looked everywhere **but in the shed**.  
 d. He did nothing **but cry**.  
 e. We had no alternative **but to fire him**.

만일 '제외'의 but이 전치사라면 그 다음에 명사(상당어)가 온 (2a)와 (2b)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예문에서는 문제가 된다. (2c)에서는 but 다음의 목적어 자리에 in the shed라는 PP가 나타났으며, (2d)에서는 'but' 다음의 자리에 cry라는 원형부정사가 사용되었으며 한편, (2e)에서는 but 다음에 'to-부정사'가 나타남에 따라 but의 문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Gilman(1989)은 이러한 유형으로 사용되는 'but'의 품사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200년 이상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두식(2004)은 이러한 but에 대해 각기 다른 사전들이 각기 다르게 그 지위를 기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both ~) and, (either ~) or 등처럼 상관접속사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m(2005)은

위의 예문 (2b), (2d-e)에서 보듯이 but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wh-분열문간의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에서 동기를 얻어 but-상관접속구문의 생성과 관련하여 ‘but-분열’이라는 변형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3) a. He enjoys eating hamburgers.
- b. (What) he enjoys eating (is) hamburgers.
- c. He enjoys eating (nothing but) hamburgers.

Kim에 의하면 wh-분열문(Akmajian 1970, Emonds 1976, Delahunty 1984 등)과 but-상관접속구문 간의 공통점은 둘 다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Hamburgers 라는 명사를 초점화한다는 점인 반면에,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what이 추가로 들어감에 따라 계사 be-동사가 나타나 원래의 구조를 두 개로 분열시켰다면, 후자의 경우는 but이 추가로 들어감에 따라 nothing 등이 나타나 원래의 구조를 두 개로 분열시켰다는 점이다.<sup>1</sup> 또한 후자의 경우 상관접속구문이라는 점 때문에 (1b)와 (2)예문의 ‘X but Y’ 구조에서 ‘but’이 상관접속사가 되기 위하여 X와 Y 사이에 구조적, 의미/기능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Constraints for <X but Y> correlatives
  - a) The endorsing elements in X must be those indefinite determiners and interrogatives which are sensitive to the nonassertive context, such as *no(-)*, *all*, *any(-)*, or *every(-)*, which reveal the positive or negative polarity, and *who*, *where*, and so forth. (=> ‘배서조건’)
  - b) There must be a meaning relation of ‘Whole vs. Part’ between the head of X and Y. (=> ‘의미조건’)
  - c) There must be syntactic or semantic equivalence/parallelism between X and Y. (=> ‘병렬조건’)

---

<sup>1</sup> 특히 후자의 경우 but 다음의 구조가 파생 전 원래 구조의 한 구성소였다고 본 것은 다음의 예문에 나타난 but 다음의 다양한 동사의 형태 때문이다.

- (i) a. He enjoys (nothing but) eating/\*to eat.
- b. He wants (nothing/no game but) to play/\*playing baseball.
- c. He did (nothing but) cry/\*to cry/\*crying all day long.

여기서 우리는 but 다음의 동사의 올바른 형태는 분열되기 전의 앞 요소인 동사의 성격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but* 전후로 나타나는 X와 Y의 요소 사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but*-상관접속구문이 생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비단정적 맥락과 연관된 (4a)의 ‘배서조건(endorsement condition: E-조건)’은 위 (2)의 예문들과 (3c)에서 보듯이 X에 배서항목인 *any*, *no*, *all*, *every* 등의 단어나 형태소가 와야 하며 이 들이 뒤에 올 *but*의 출현을 보증하는 배서항목(endorsing items)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but*이 상관접속사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4b)에서 말하는 ‘의미조건(semantic condition: S-조건)’에 의하면, X라는 구의 중심어 (또는 어근)와 Y 간에 수량에 있어서 ‘부분-전체’ 또는 범주상으로 ‘상하관계(hyponymy)’(이익환.안승진 2003: 262), ‘집합-구성원(set-member)’관계, 지칭상으로 ‘일반적/총체적-구체적/특정적(generic-specific)’관계라는 의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일괄하여 ‘부분(-전체)관계’라는 의미관계로 칭할 것이다. 따라서 위 (2a)를 보면, John이 friends라는 한 집합(set)의 한 구성원(member)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sup>2</sup> 한편 (4c)의 ‘병렬조건(parallelism condition: P-조건)’은 X와 Y 간에 통사범주가 통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병렬적이어야 (즉,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위 (2a-b)를 보면 각각 *no friends*와 John 사이 그리고 *anything*과 *skiing* 사이에서 각각 동일한 통사범주가 유지되고 있음을 본다.<sup>3</sup> 이 3 가지 조건(이하 ‘E/S/P-조건’이라 칭함)을 지켜야만 기저형에서 상관접속구문으로 여겨지는 *but*-분열문이 생성된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이 인정되어야만 (2)에서 보인 것처럼 *but* 다음에 올 수 있는 통사범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제외’의 *but* 다음에 *for*, *of*, *with* 등의 전치사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Kim(2005)이 다루지 않은 영역에 관심이 있다.

(5) a. No [one] but [the servers and musicians] dare to step out from under

2 그런데 위 (2b) (즉, “S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but* skiing.”)에서는 이러한 부분관계가 anything의 어근인 thing과 skiing간에 일반성과 구체적 사례라는 ‘등급적 함축의미(scalar implicature)’(Hirschberg 1991:126) 관계가 발생된다고 본다.

3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 (i) a. *Any day but Saturday* is OK.  
 b. He desired [*no<thing>/no choice*] *but to accept the fact*.  
 c. You’re a prophet *everywhere but in your own village*.

위에서 보면, (ia)는 NP 끼리 병렬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ib)에서는 *nothing*, *no choice*라는 NP와 ‘to-부정사’, (ic)에서는 *everywhere*라는 AdvP와 *in your own village* 라는 PP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통사적으로 병렬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Kim(2005)은 Schachter(1977)와 Peterson(1981) 등이 등위접속의 제약으로 제안한 ‘동일한 의미적/기능적 범주끼리의 병렬관계’(semantic/functional parallelism) 개념을 받아들여 (ib)에서는 ‘nominal’(명사상당어 또는 명사류) 끼리, (ic)에서는 ‘adverbial’(부사상당어 또는 부사류) 끼리 병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the shaded tent. (COCA/3/2012/FIC/Bk:ReeducationCherry)

a'. I know [no one] *but* [*for* some few, Lincoln Kirstein, Herbert Read, Isaiah Berlin], for whom the practice of life has yielded such incredible riches.<sup>4</sup>

a". No [one], *but* [*for* two girls he had met earlier in the day], even knew where he was.<sup>5</sup>

(6) a. Beowulf fought *for* [nothing] *but* [fame and glory].

a'. Brief History of a gallant men of Ceylon who fought *for* [nothing] *but* [*for* the regiment].<sup>6</sup>

b. The young people of today think *of* [nothing] *but* [themselves].

b'. You are ignorant *of* [nothing] *but* [*of* yourselves].

c. "We share our misery *with* [no one] *but* [ourselves]," he said.

c'. We started *with* [nothing] *but* [*with* a tiger's heart].

(7) The work was now complete, *but* *for*/\**but* a final coat of paint.

(8) a. I'd have crashed the car *but* *for*/\**but* your warning.

b. *But* *for*/\**but* your warning, I'd have crashed the car.

위 예문에서 먼저, 병렬조건(P-조건)에 의하면 (5a)에서처럼 *but* 전 후의 요소에 [NP:NP]라는 병렬관계가 요구되지만, (5a')와 (5a'')를 보면 *but* 다음에 *for*가 나타나 그 전 후의 요소가 [NP:PP]로 연결되어 P-조건을 어기는 *but*-구문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a)와 (6b)를 보면, *but*-구문의 제약에 의해 *but* 전 후의 요소가 [NP:NP]라는 병렬관계가 요구되어 정상적인 *but*-구문으로 나타난 반면에, (6a')와 (6b'), (6c')는 이러한 P-조건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장이다. 이곳에서는 *but* 앞의 상관어인 X 위치의 명사구 앞에 놓인 전치사(*for*, *of* 등)가 복사하여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7)은 ‘제외’의 의미환경에 놓여있으나 E/S/P-조건을 모두 어기고 있으며 *but* 대신에 반드시 ‘*but for*’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8)은 ‘without’ 또는 ‘if ~ not’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but* 대신에 <*but + for*>가 사용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but* 앞에 상관어도 없으니 E-조건, S-조건 모두 어기며 *but* 전후의 구조가 병렬적이지 못하니 P-조건 또한 어겨 세 조건 모

<sup>4</sup> <http://www.eakinspress.com/publications/a-tribute-to-leslie-george-katz>

<sup>5</sup> [http://moviesharkdeblore.com/site/movies/movies\\_view.php?editid1=525](http://moviesharkdeblore.com/site/movies/movies_view.php?editid1=525)

<sup>6</sup> <http://www.scribd.com/doc/28892357/Brief-History-of-the-Ceylon-Mounted-Rifles>

<sup>7</sup> 그러나 나중에 제3절에서 논의하겠지만 (6a')와 (6b')에서 *but* 뒤에 나타난 pp와 병렬관계를 이루는 것을 ‘(no)thing’으로 보지 않고 더 큰 구인 ‘for/of nothing’으로 보는 것으로 Kim(2005)의 P-조건을 수정한다면 ‘E/S/P-조건’ 모두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두를 어기고 있다. 위의 예문들로부터 볼 때 E/S/P-조건이 ‘but for’의 출현에 대해 문제점을 안기기도 하지만(예문 5, 6) 한편으로는 설명력을 가지기도 한다(예문 7, 8).

따라서 본 연구는 **but** 다음에 수의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전치사를 수반하는 구문에 관심이 있으며 전치사 없이 **but**만으로 나타난 구문에서의 제약이 전치사가 수반되는 구문에는 어떻게 효과를 거두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고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위 (5-6)에서 보인 ‘**but**-전치사’의 출현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을 지녔던 P-조건 때문에 전체 E/S/P-조건을 폐기해야 할 것인지이며, 둘째는 만일 그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but** 다음에 오는 전치사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고, 마지막 문제는 서로 의미상으로 유사한 ‘**but**-전치사’ 유형에서 ‘**but**’과 이에 동반되는 전치사 **for**의 문법적 지위 및 사용맥락/발생환경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 2. 등위접속사 ‘But’과 상관접속사 ‘But’의 차이

본 절에서는 ‘**but**’을 여러 측면에서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두 종류의 접속사 **but**은 근본적으로 **but** 사용 앞에 상관어가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상관접속사 **but**은 다른 상관접속사 **and**, **(n)or**, **but** (**also**), **than** 과 마찬가지로 이들 접속사 앞에 배서항목의 단어들만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 (9) a. *Both* David and Joan got divorced.  
 b. He has met *either* her mother or her father.  
 c. He is *not only* poor but also lazy  
 d. I’d *rather* play tennis than swim.
- (10) a. I’ve finished *all* the jobs but one.  
 b. He eats *nothing* but hamburgers.  
 c. It’s the end of communism in *every place* but China and Cuba, probably.  
 d. Joe can come *any day* but Monday.
- (11) a. I glanced at his watch but didn’t recognize the brand.  
 b. He had no role in it, but he feels as if he did.

위의 (9)에서 and 나 or 등과 같은 상관접속사들이 자신들 앞에 반드시 배서항목의 단어들이 나타나야 하듯이 (10)의 ‘제외’의 상관접속사 but도 그 앞에 반드시 all, no(body), every, any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11)에서 보듯이 등위접속사는 자신의 앞 위치에 비단정적인 맥락을 이루는 부정문/의문문이든 단정적 맥락인 긍정문이든 상관없이 나타난다.

둘째, 등위접속사 but과 상관접속사 but은 의미뿐만 아니라 발생 맥락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등위접속사 but은 ‘역접’의 의미(즉, ‘and yet’)를 갖지만 상관접속사 but은 ‘제외’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구조적으로 보면, 전자의 but 포함 문장을 접속구문(또는 삭감구문)<sup>8</sup>으로 보지만 후자의 but 포함 문장은 분열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a. I'm sorry, *but* you're not allowed to go in there.  
 b. Bobby enjoys playing basketball *but* not baseball. (= ‘... but (does) not (enjoy playing) baseball.’)  
 c. Tom was not there *but* his brother was.<sup>9</sup>
- (13) a. He met <nobody *but*> John.  
 a'. He met Ø John.  
 b. We had <*no* alternative *but*> to fire him.  
 b'. We had Ø to fire him.

위의 (12)의 모든 문장에서 *but*은 의미적으로 ‘and yet’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sup>8</sup> 접속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래 (ia)와 같이 접속구문(coordination)으로 보기도 하고(Gleitman 1969 등) (ib)와 같이 삭감구문(conjunction reduction)으로 보기도 한다(Petrick et al 1969, Koutsoudas 1971 등):

- (i) a. <Bill and John> hesitated.  
 b. Bill (hesitated) and John hesitated.

<sup>9</sup> 이 문장과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에서처럼 상관접속사로 분류되는 *but*도 있다.

- (i) a. He didn't <come to help>, *but* <to hinder us>.  
 b. He came **not** <to help>, **but** <to hinder us>.  
 c. He came <to help>, **and/but not** <to hinder us>. (Quirk et al 1985: 941)

이러한 *but*은 등위접속사 *but*과는 달리 거의 병렬관계를 유지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ia)에서처럼 본동사가 누락되어 연결되기도 하지만 거의 (ib)나 (ic)처럼 to-부정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ic)처럼 *but*이 *not*의 위치를 반대로 취하는 ‘거부적(repudiatory)’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but*이 등위접속사나 상관접속사나 구분이 모호하여 이 둘 사이가 정도를 나타내는 등차성(gradience) 개념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12a)와 (12c)에서는 *but* 이하의 구조가 앞의 구조와 병렬관계를 이루면서 접속되어 나타난 반면에, (12b)에서는 *but* 이하에 동일 구조가 접속된 후 동일하게 중복된 요소를 줄인 후 나타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3)에서 문장 (a)와 (b)를 각 (a')와 (b')와 관련시켜 보면 전자의 문장들은 분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X *but* Y’ 분열문에 사용되는 ‘제외’ 의미의 상관접속사 *but*과 등위접속사로 사용되는 *but*은 Kim(2005)이 제시한 3가지 제약조건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상관접속사 *but*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즉, 배서(E-)조건, 의미(S-)조건, 병렬(P-)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만, 등위접속사 *but*은 그렇지 않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4) a.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in this world, *but* [in the end it all comes down to one]. (P-/\*E-/\*S-조건)  
 a'. The demise of the music industry is visible <everywhere> *but* <in the facts>. (E-/S-/P-조건)  
 b. Time stops for no one *but* [your memories will be yours forever]. (E-/\*S-/\*P-조건)  
 b'. I will wait for <no one> *but* <you>. (E-/S-/P-조건)  
 c. Without you I am *nothing*, *but* [with you everything is possible. Have mercy on me!] (E-/\*S-/\*P-조건)  
 c'. I watched the alert light and wished <for nothing> *but* <for it to stop.> (E-/S-/P-조건)

예문 (14a)을 살펴보면, *but* 전 후의 통사범주가 [S:S]로 연결되어 있어 P-조건은 지킬 뿐 그 외 배서조건과 의미조건을 모두 여기는 반면에, (14a')는 3 가지 E/S/P-조건 모두 지키고 있다. 즉, (14a')에서 ‘every’가 나타났으니 E-조건은 지켜지고 있으며 ‘in the facts’가 ‘everywhere’의 한 부분이니 X와 Y 사이에 ‘전체-부분’이라는 의미관계가 유지되니 S-조건이 충족되며, ‘in the facts’와 ‘(every)where’가 서로 부사류(adverbial)로 연결되어 P-조건이 지켜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14b)의 *but*은 (14b')와는 달리 상관접속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no one’이 나타났으니 E-조건은 지키나 나머지 두 조건은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your memories’가 사람을 뜻하는 ‘one’의 부분으로 해석되지 않아 ‘전체-부분’이라는 의미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뿐 아니라 *but* 전 후의 요소들이 [NP:S]로 연결되어 병렬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4b')에서는 *no*와 같은 배서 어휘가 출현해 있고 *one*

과 you 사이에 부분관계가 유지되고 또한 but 전후가 [NP:NP]로서 같은 통사범주로 연결되어 E/S/P-조건 모두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14c)를 보면, 배서(E-)조건은 지키고 있으나 의미(S-)조건과 병렬(P-)조건을 어기고 있다. 즉, but 전후를 보면 NP와 S가 연결되어 있어 병렬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접속사가 나타나는 (14c)는 이 세 E/S/P-조건을 모두 지키고 있다. 즉, but 앞의 맥락에 nothing이 있어 E-조건을 지키고 있으며, Kim(2005)의 P-조건에 따라 ‘nothing’와 병렬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but 다음의 구조가 NP이어야겠지만 다음 절에서 수정할 병렬관계에 의하면 but 전후의 ‘for nothing’ 과 ‘for it to stop’ 구조가 서로 PP를 이루어 병렬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며, 한편 ‘-thing’과 ‘(for) it to stop’이 ‘-thing’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어 ‘전체-부분’이라는 의미관계를 이루어 세 조건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but이 ‘제외’의 상관접속사나 ‘역접’의 등위접속사나 (일부 수정될) Kim(2005)의 세 조건으로 구분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3. ‘But-전치사’의 구조 유형과 그 용법 차이

본 절에서는 ‘but’의 문법적 지위와 그 의미 그리고 but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전치사의 종류와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그 용례와 용법을 살펴볼 것이다.

#### 3.1 ‘But-전치사’ 구조의 용례

각종 영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우연한) 연쇄체로서의 ‘no hope’ 라는 표현 다음에 오는 ‘but for’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의 but이 등위접속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제외’의 상관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but for’ 전체가 복합전치사구로 기능하기도 하고 but 자체가 전치사 앞에 나타나 ‘제외’ 의미의 부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제외’의 but이라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전치사의 용도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역접’의 등위접속사 but]

(15) a. There is no hope, *but for myself* I was fortunate.

b. For Saruman there may have been no hope, *but for herself*?<sup>10</sup>

<sup>10</sup> [http://www.lotrplaza.com/showthread.php?74813-IR-Debate-Season-XI-Round-2-\(and-open-RP](http://www.lotrplaza.com/showthread.php?74813-IR-Debate-Season-XI-Round-2-(and-open-RP)

[‘제외’ 의미의 단독의 ‘but’]

- (16) a. Faith thrives when there is no hope but God.  
 b. There is a hope: God.  
 c. There is (no hope but) God.

[‘제외’ 의미의 ‘but-전치사’]

- (17) a. I run for no one but myself.  
 b. There is no hope but for the hope that we share. (‘for’는 수의적)  
 c. Here, nothing happened. No one, but for the SK military perhaps, wanted a strike-back.<sup>11</sup>
- (18) a. We have no hope but <for things to stay as they are>.<sup>12</sup>  
 b. He wants me to have a hope <for His plan in my life to be seen to completion>. (<http://poriverclinic.com/2013/02/>)  
 c. His hope is <for that to come as early as Sunday>.
- (19) a. The work was now complete, but for a final coat of paint. (= ‘except for’)  
 b. But for the children, Mrs. Smith would have left her husband years ago. (= ‘Without -’)
- (20) He said after the brutal war in the country, there are lots of amputee’s with no hope, but with the talent of playing football.<sup>13</sup>
- (21) a. Without faith, there is no hope but for what the government will do for/to us.<sup>14</sup>  
 b. The hope for what the government will do ...  
 c. There is a hope for Jesus’ return.
- (22) a. The third step is, to love nothing but for God’s sake, in Him, and for Him, and to Him.  
 (<http://www.scripturestudies.com/Vol8/H1/top.html>)  
 b. We are nothing but by the law. (Napoleon)

<sup>11</sup> <http://asiansecurityblog.wordpress.com/2010/10/04/cheonan-sinking-changes-nothing-korean-institute-of-defense-analysis-1/>

<sup>12</sup> <http://www.patheos.com/blogs/nakedpastor/2013/04/caution-christians/>

<sup>13</sup> <http://awoko.org/2013/01/09/first-national-disabled-soccer-kicks-off-in-april/>

<sup>14</sup> <http://www.firstthings.com/onthesquare/2010/06/the-realism-of-religious-freedom>

위 예문 (15)에 나타난 but은 등위접속사로서 ‘역접’의 의미(즉, ‘yet’)를 지니며 그 다음에 나타난 for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for ~self’가 나타나야 할 이유 때문에 for가 나타났으며 but과는 우연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15b)의 경우는 ‘for herself’ 다음에 맥락상 ‘was there any hope’ 정도가 생략된 채 나타났을 뿐 여전히 등위접속사로서 ‘역접’의 의미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16-22) 사이의 예문에 나타난 but은 ‘for’의 존재를 무시하더라도 모두 ‘제의’를 갖는다. 그리고 (16-22)에 나타난 but에 for가 덧붙여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이유와 for의 의미 성격에 대한 의문은 but이 첨가되기 이전의 기저문을 고려해 보면 대체로 해결된다. 먼저 (16a)는 전치사가 수반되지 않고 but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전형적으로 Kim(2005)의 ‘but-분열’이라는 과정으로 그 출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즉, (16b-c)에서 보듯이 먼저 ‘There is’와 ‘God’ 사이를 가른 후 배서항목의 단어들 중 no와 but 뒤의 God에 비길만한 명사 중 hope를 선택하여 그 사이에 삽입하면 (16a)의 표면형을 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P-조건을 지키기 위해 ‘(no) hope’의 통사범주에 맞는 NP가 but 다음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7-22)사이에서는 모두 but 다음에 전치사 for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중 (17-19)에서는 but 다음에 전치사가 온다면 반드시 for인 경우이지만 (20-22)에서는 for 이외에도 다른 전치사가 올 수 있다. 먼저 (17)의 경우를 보면, but 다음의 for의 출현이 수의적이라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for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E/S/P-조건을 지키겠지만 특수한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but 이하 표현의 길이가 길어 콤마를 수반하여 문중이나 문미에 나타날 경우에는 for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예문 (18-19)에서는 반드시 for가 나타나야 한다. 이 중 (18a)에서는 반드시 for가 나타나는데 이 때의 for는 물론 전치사이지만 그 기능은 ‘보문소(complementizer)’이다. 왜냐하면 (18b-c)에서 보듯이 그 뒤에 오는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but 다음의 Y 위치의 통사범주가 X 위치에 있는 hope와 의미상으로 병렬관계(즉, 등치관계)를 유지하는 등 E/S/P-조건을 모두 지킨다. 한편 (19)의 ‘but for’는 (16a)에 제시된 단독의 ‘but’과는 달리 전형적으로 E/S/P-조건 모두를 지키지 않는 경우로서 반드시 for와 함께 사용되어 복합전치사로서 상황에 따라 ‘except for’ 나 ‘without’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제 나머지 예문 (20-22)에서는 but 다음에 전치사가 for 이외에도 다른 전치사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예문 (20)은 이미 (6a’), (6b’), (6c’)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but 다음에 오는 구조가 X(즉, ‘no hope’)를 포함하는 상위 구인 PP의 중심어 with를 복사하여 병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P-조건을 수정한다면, 이 문장은 E/S/P-조건을 모두 지키는 but-상관접속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문 (21)의 경우는 이전의 (16-18)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부분’이라는 의미관계의 면에서

‘but for’ 이하의 내용이 앞 X의 중심어(즉, hope)의 한 부분이 되는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21a, b)의 기저형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for 이하의 NP가 hopes의 한 가지/부분이 아니라 ‘hope for’의 한 대상인 것이다. 여기서는 제외의 의미를 지니는 단독의 but이 지켜야 하는 E/S/P-조건 중 S-조건을 어기며 단지 구조적으로 언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ut 다음에 for를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의 경우를 보자. (22)는 but 다음에 전치사가 for 외에도 다른 전치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but 이하의 PP가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구조로서 근본적으로 P-조건을 지킬 수 없어 정상적인 but-분열문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22a)에서처럼 ‘nothing but’이 ‘화석화(fossilized)’되어 동사 love와 PP를 가르고 그 사이에 삽입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Kim 2005, p.904 참조) 아니면 (22b)처럼 ‘We are something by the law’와 비슷한 기저형에서 제외적 해석을 위해 ‘some-’을 ‘no-’로 바꾸고 by-전치사구 앞에 but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등위접속사로서의 but 이외에, ‘제외’의 의미의 but 다음에 for 등과 같은 전치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but-전치사’ 구조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세분하여 기술할 수 있겠다. 하나는 위 (17)에 나타난 경우로서 <X ‘But-(For)’ Y>라고 칭할 것이다. 이 경우는 for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 E/S/P-조건을 모두 지키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예문 (18)에서 but 다음에 ‘for-to 보문절’을 취하는 경우로서 이를 <X ‘But-For1’ Y>라 칭할 것이며 이 때의 ‘for + Y’는 그 다음에 오는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되며 생략된다면 ‘for + Y’ 전체가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9)의 경우는 항상 for를 취하면서 E/S/P-조건을 모두 어기는 경우로서 <X ‘But-For2’ Y>라 부르겠다. (20)은 but 다음의 전치사가 for 외의 전치사도 가능하며 X 위치에 채워진 PP의 전치사와 동일하게 복사되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X ‘But-(Prep)’ Y>로 불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21-22)에서 보듯이 but 다음에 반드시 for나 기타 전치사가 오는데 이러한 전치사가 X 위치의 NP와 언어관계에 놓이거나 Y 위치에 놓이는 PP 내의 보충어(complement) NP와 언어관계에 놓이는 경우로서 이를 <X ‘But-Prep’ Y>라 칭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용례를 들면서 그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 3.2 <X ‘But-(For)’ Y> 구조의 용례와 용법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X ‘But-(For)’ Y> 구조는 Kim(2005)의

E/S/P-조건을 모두 지켜 생겨난 ‘X but Y’ 상관접속구문에 for를 수의적으로 취하면서 나타나는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3) <X ‘But-(For)’ Y> 구조의 특징
- a. for의 출현이 수의적이다.
  - b. X 위치에 나타나는 배서항목 중 거의 no를 수반하는 NP에 한한다.<sup>15</sup>
  - c. for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E/S/P-조건을 모두 지킨다.
  - d. for의 출현은 Y의 상대적 길이에 비례하며 문중이나 문미에 나타날 경우 거의 comma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보자.

- (24) a. No one, but <for two girls he had met earlier in the day>, even knew where he was.<sup>16</sup>
- a'. No <one> but <doctors and nurses> had seen Sarah’s scars.  
(COCA/1/1999/FIC/Bk:CloudNine)
- b. There was no noise but <for the sullen and persistent whirr of the ceiling fans>. (BNC H89)
- b'. For a minute there was no <noise> but <rain frogs singing out behind the creek>. (COCA/2/1992/NEWS/Atlanta)

위 (24a')와 (24b')에서 보듯이 제외의 but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은 E/S/P-조건에 달려있어 이 중 P-조건(즉, [NP:NP])에 따라 but 다음은 NP가 와야 한다. 그러나 (24a)와 (24b)는 이 조건을 어기고 for를 삽입함으로써 [NP:PP]로 연결된 셈이다. 이렇게 for가 첨가되는 경우는 (24a)처럼 문두나 문중에서 그 앞의 NP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경우 반드시 comma를 수반하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24b')처럼 문미에서 상관어 X 위치의 ‘no noise’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NP(즉, ‘the

<sup>15</sup> 다음에서 보듯이 ‘no ~ but’ 뿐만 아니라 ‘all but’도 특히 문미에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 경우에는 for가 나타나는 예도 발생한다.

(i) a. By 1918, all but <one of my close friends> were dead.  
 b. I suppose this wont make much sense to all but for <those who encounter the same problem that I did and read this>. I’m sure they’ll know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http://supportforums.blackberry.com/t5/Other-BlackBerry-Smartphones/Message-quot-Enter-Black-berry-to-continue-quot-Help-please-with/td-p/7026>)

<sup>16</sup> [http://moviesharkdeblore.com/site/movies/movies\\_view.php?editid1=525](http://moviesharkdeblore.com/site/movies/movies_view.php?editid1=525)

sullen ...’)가 오는 경우 for를 수의적으로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3.3 <X ‘But-For1’ Y> 구조의 용례와 용법

이 ‘제외’ 구조는 but 다음에 오는 to-부정사구에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여 ‘for-NP’가 채워지는 즉, ‘for-to 보문절’이 오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25) <X ‘But-For1’ Y> 구조의 특징

- a. ‘for-to 보문절’을 취하는 hope, alternative, option 등의 명사 다음에 나타난다.
- b. X 위치의 이러한 명사와 Y 위치의 ‘for-to 보문절’ 간에 E/S/P-조건 모두가 지켜지며 따라서 but은 상관점속사이다.
- c. 이 유형에서 나타나는 for는 전치사가 아니라 ‘보문소(complementizer)’이다.
- d. 이 구조에서 의미상의 주어인 NP도 함께 생략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for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26) a. We have *no* <hope> *but* <for things to stay as they are>. (= 19)  
 a'. He wants me to have a hope <for His plan in my life to be seen to completion>. (<http://poriverclinic.com/2013/02/>)  
 a". His hope is <for that to come as early as Sunday>.
- b. There was really *no* <alternative> *but* <for women to create their own way>. (COCA/39/1992/NEWS/Houston)
- b'. The last alternative is <for him to receive a new heart>. (COCA/6/2005/NEWS/WashPost)
- c. Because of a mix-up, there was *no* <option> *but* <for then 10-month old Olivia to accompany her dad to work>. (COCA/146/1997/MAG/GoodHousekeeping)
- c'. My preferred option is <for us to stay in there>.

위에서 각 ‘(프라임)’이 붙어있는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hope, alternative, option 등

과 그 뒤에 오는 ‘for-to 보문절’ 간에는 보충관계(complementation)가 성립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구조관계 때문에 ‘제외’ 해석이 나오는 but-구조에서는 for가 출현하지 않을 수 없다.<sup>17</sup>

### 3.4 <X ‘But-For2’ Y> 구조의 용례와 용법

영어 용법서로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Swan(1995: 101)에 의하면, but은 ‘except’의 의미로 사용되며 but for는 ‘if something had not existed/ happened’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법은 but-for 구조의 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이 용법은 <X ‘But-For2’ Y> 구조에 속하는 용법의 한 경우일 뿐이며 이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7) <X ‘But-For2’ Y> 구조의 특징

- a. but 다음에 항상 전치사 for를 취하기 때문에 ‘but for’ 전체가 복합전치사로 간주된다.
- b. 이 구조는 E/S/P-조건을 모두 어긴다.
- c. 아래 (e1)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두로 이동이 가능하며 대신에 ‘except for’를 사용할 수 없다.
- d. 아래 (e2)의 의미로는 대신에 ‘except for’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 e. 이 구조는 다음 2가지로 paraphrase 할 수 있다.<sup>18</sup>
  - 1) (‘가정’의 의미) ‘without’; ‘if something had not existed/ happened’

<sup>17</sup> X 위치의 중심어 hope, alternative, option 등의 단어와 ‘for-to 보문절’ 간의 보충관계 때문에 다음 예문처럼 but 다음에 올 to-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없는 문맥이면 당연히 보문소 for와 그 의미상의 주어 NP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i) a. When it does happen, there’s no <hope> but <to accept it and lean into it>.
- a'. My hope is <to become a journalist>.
- b. He had no <alternative> but <to obey that order>.
- b'. The only alternative is <to obey that order>.
- c. There is no <option> but <to wait for Baba to return>.
- c'. My option is <to open another program>.

Kim(2005)에서는 hope, alternative, option 등과 같은 NP와 but 다음의 Y 위치의 to-부정사가 서로 <Nom:Nom>으로 병렬되어 기능적 P-조건을 지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병렬관계를 유지하는 X 위치에 흔하게 나타나는 명사의 유형으로 COCA는 빈도에 따라 choice, alternative, option(s), recourse, purpose, reason, solution, way, work, thought 등의 순서로 그 명사 목록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sup>18</sup> But-For2가 (e1)에서 보이는 ‘가정’의 의미를 가질 때는 ‘except for’와 교체사용이 불가능하며(Swan 2005: 174), (e2)에서 보이는 ‘제외’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except for’와 교체사용이 가능하다.

2) (‘제외’의 의미) ‘except for’; ‘with the exception of’

예를 들어보자.

- (28) a. The work was now complete, but for/\*but a final coat of paint.  
 (‘except for’와 교체사용 가능) (Macmillan Dictionary)  
 b. That is favorable to the veteran, but for/\*but the error.<sup>19</sup>  
 c. There was only a place empty of footprints and silent but for/\*but  
the occasional sound of snowpack settling under the sun.  
 (COCA/135/2012/MAG/NatlParks)  
 d. I felt fine but for/\*but an itchy back.
- (29) a. I would have been in real trouble but for/\*but your help.  
 a'. But for/\*But your help, I would have been in real trouble.  
 b. But for/\*Except for the storm, I would have been home before  
 eight.  
 b'. I would have been home before eight but for/\*except the storm.

위 (28-29) 모두 ‘but for’ 전후의 문맥이 E/S/P-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어긴다면 but 대신에 but for를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제외’의 뜻을 가지는 (28)의 ‘but for’ 일 경우 일 때는 문두로의 전치가 불가능하지만 (29)처럼 ‘가정’의 의미를 지닐 때는 문두 전치도 가능하다. <X ‘But-For2’ Y> 구조는 이러한 두 용법 중 후자가 훨씬 빈번하다. 이러한 의미 차이 때문에 ‘but for’ 가 ‘except for’ 와의 교체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자에 한한다.<sup>20</sup>

<sup>19</sup> <http://www.ptsdlawyers.com/Appealing-a-VA-Denial/Old-Denied-VA-Claims.shtml>

<sup>20</sup> 그러나 E/S/P-조건을 지키는 문맥에서는 당연히 단독의 but만이 사용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except’도 ‘except for’도 교체사용 가능하며 특히 ‘except for’의 경우는 문두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다음 예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 (i) a. One day the maids had cleaned **all** the rooms but/\*but for one - it had a Do Not Disturb sign on the outside. (<http://www.mungermoss.com/history2.html>)  
 b. I've cleaned **all** the rooms except (for) the bathroom. (Swan 2005: 173)  
 c. Except for/\*Except John and Mary, nobody came. (물론 여기서 But for 도 불가: Swan 2005, p.173)

### 3.5 <X ‘But-(Prep)’ Y> 구조의 용례와 용법

<X ‘But-(Prep)’ Y> 구조는 전치사의 출현이 수의적이라는 면에서는 <X ‘But-(For)’ Y> 구조와 비슷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출현 전치사의 종류와 통사적 P-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다음의 예들을 보자.

- (30) a. To the contrary, no <countries> **but** <the U.S. and Russia> can convert anthrax to a usable weapon.  
(<http://philadelphians.50megs.com/anthxdis.html>)  
b. Here, nothing happened. No <one>, **but** <for the SK military perhaps>, wanted a strike-back.<sup>21</sup>
- (31) a. No one is responsible **for** any <actions> **but** <his own>.  
(COCA/1/1991/FIC/Mov:StarTrek06)  
b. With a Special Needs Trust Account, they basically use it <for anything> **but** <for <rent and food>>.<sup>22</sup>  
c. And it is not an ad **for anything**, **but** **for your eternal benefit**.  
(<http://www.franciscan-archive.org/misc/stop.html>)
- (32) a. We started <with no<thing>> **but** <with <a tiger’s heart>>.  
b. “We share our misery with no <one> **but** <ourselves>,” he said.

제3.1절에서 기술한대로 E/S/P-조건 모두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but 다음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양쪽에 comma를 수반하여 바로 뒤에 for를 첨가한 상태로 삽입의 형태로 들어간 것이 (30)에서 보이는 <X ‘But-(For)’ Y> 구조라면, <X But-(Prep) Y> 구조는 (31-32)에서 보듯이 for 외에도 다른 전치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전치사 출현의 근거는 X 위치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PP의 전치사에 있으며 이 PP가 but 을 전후로 하여 통사적으로 P-조건을 지키려 한데서 전치사의 복사가 목격된다. 이럴 경우, Kim(2005)의 P-조건은 효력이 상실된다. (31a)를 보면, X 위치의 action이라는 NP와 but 다음의 his own이라는 NP가 서로 통사적으로 병렬관계를 이루어 결국 P-조건이 충족되어 정상적인 문장이 되어있음을 본다. 그러나 (31b)를 보면 X 위치에는 (any)thing이라는 NP가 배치되고 Y 위치에는 for rent and food라는 PP가 배치되어 있어 서로 P-조건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

<sup>21</sup> <http://asiansecurityblog.wordpress.com/2010/10/04/cheonan-sinking-changes-nothing-korean-institute-of-defense-analysis-1/>

<sup>22</sup> <http://muscles4timothy.blogspot.com/p/special-needs-trust-account.html>

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정문이다. (32)에서도 with의 출현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32a)도 여전히 정문이다. but을 전후로 하여 생긴 이러한 PP끼리의 병렬 관계 유지가 흥미롭게도 but이 ‘역접’의 상관접속사로 나타난 (31c)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기존의 E/S/P-조건을 현 상태로 두면 (31b)나 (32a)와 같이 Y 위치에 동일 전치사가 되풀이 되어 나타난 문장을 정문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아래 (33c)에서는 이를 수정할 것이다. 다음은 <X ‘But-(Prep)’ Y> 구조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33) <X ‘But-(Prep)’ Y> 구조의 특징

- a. Y 위치에 for 등 여러 전치사가 나타나며 그 출현은 수의적이다.
- b. 전치사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 (4)에 제시한 Kim(2005)의 E/S/P-조건을 모두 따른다.
- c. 만일 전치사 나타나면 기존의 E/S/P-조건 중 P-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X(를 보충어로 취하는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와 Y 간에 통사적 또는 의미적 등치/병렬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이하 ‘수정 P-조건’이라 칭함

위 (33c)의 ‘수정된’ P-조건이 기존의 Kim(2005)에서 제안된 P-조건과 다른 점은 P-조건에 관여하는 두 요소 중 X의 범위를 조정한 데 있다. 즉, 기존의 P-조건에는 그냥 그 범위가 단순히 ‘X’였다면 ‘수정된’ P-조건에서는 그 ‘X’에 선택적 요소를 첨가하여 “X(를 보충어로 취하는 최대투사)”로 수정하였다. 이제 <X ‘But-(Prep)’ Y> 구조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34) a. All this pain and suffering is <for no one> but <for you>.  
(<http://thisispussygalore.tumblr.com/>)  
a'. Long sentences are for <no one> but <poor people>.
- (35) a. You can even offer the best of them permanent part-time jobs, again <with no benefits> but <with a raise in pay>.  
(COCA/1/1993/NEWS/SanFranChron)  
a'. ... worked to death for very little money and <no benefits> but <the hour pay>.  
(<http://blog.intuit.com/employees/in-the-trenches-turnover-hurts/>)
- (36) a. For we have been redeemed by the passion <of no one> but <of Christ>.

(<http://www.franciscan-archive.org/lombardus/opera/lsl1-48.html>)

a'. We know of *no* <one> *but* <Xerxes> who was so intoxicated with his power as to say to the waves.<sup>23</sup>

원래 Kim(2005)에서 제안된 P-조건은 엄격하게 X 위치의 배서항목 즉, 전칭양화사 every, all이나 비확정 한정사 any, no 나 수사의문문에 나타나는 who, what 등을 포함하는 구의 중심어와 Y 위치의 통사범주끼리 병렬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34-36)에서 보면, (34)의 X 위치의 ‘one’과 같은 NP와 Y 위치의 ‘you’나 ‘poor people’로서 <NP:NP>가 되어야 각각 P-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되며, 마찬가지로 (35)에서는 ‘benefits’과 ‘a raise in pay’ 그리고 ‘benefits’과 ‘the hour pay’ 로서 각각 <NP:NP>가 되어 P-조건이 충족되고 있으며, (36)에서도 ‘one’과 ‘Christ/Xerxes’ 가 <NP:NP>가 되어야 P-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의 예문 (34-36)의 각 a-문장은 <NP:PP>로 배열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위의 각 a-문장에서 but 다음에 NP가 아니라 PP가 오게 된 것은 바로 X 위치의 NP 앞에 나타나게 된 전치사 때문이며 어떤 이유로 동일한 전치사가 Y 위치에 다시 복사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사실 P-조건이 상당 부분, 특히 but 다음에 VP가 오는 경우 의미적/기능적 등치관계(semantic/functional equivalence)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통사적 형태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란 점에 유의할 만하다. 따라서 위 세 문장의 각 a'-문장에서 Y의 NP 범주 때문에 <NP:NP>로 병렬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X 앞의 전치사를 포함시킨다면 전체가 PP가 되어 결국 but 다음에도 PP로 병렬되도록 동일 전치사를 복사하여 첨가시키게 된 셈이다. 이러한 첨가 행위는 여기 (34-36)에서만 일어나는 제한된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며 다른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 별도의 동기(independent motivation)가 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전치사의 복사가 다음과 같은 등위접속사 접속현상에서도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37) a. Here we must deal *both* <with speculation> *and* <with probabilities>.

(<http://history.nasa.gov/EP-177/ch7-6.html>)

a'. There are at least 4 different kinds of questionnaires, and they deal with *both* <advertisers> *and* <competitors>.

(COCA/2011/NEWS/SanFranChron)

<sup>23</sup> <http://www.econlib.org/library/Bastiat/basHar1.html>

위의 (37a) 예문은 [both <with-PP and with-PP>]로서 상관접속사 <both ~ and> 사이에 PP로 병렬관계를 이룬 경우인데 바로 이 경우가 병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 전치사with를 한번 더 복사한 경우라면, (37b) 예문은 [with <both NP and NP>] 로서 with-전치사구의 보충어 위치에서 <both ~ and>사이에 단순히 NP로 병렬관계를 이룬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수학에서 말하는 ‘결합법칙’ [=  $A(B + C)$ ]과 ‘분배법칙’ [=  $AB + AC$ ]의 선택성과 바로 직결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의 A가 바로 전치사 자리이다.

### 3.6 <X ‘But-Prep’ Y> 구조의 용례와 용법

이 ‘제외’ 구조는 but 다음에 반드시 어떠한 전치사를 수반해야 하는데 전치사의 선택이 이 전치사를 전후로 하여 나타나는 명사와의 언어관계, 즉 ‘명사(X)-전치사’ 나 ‘전치사-명사(Y)’의 언어관계에 의존해서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38) <X ‘But-Prep’ Y> 구조의 특징

- a. Y 위치에 반드시 for 등 여러 전치사를 취한다.
- b. Y 위치의 전치사의 선택은 X 속의 NP가 그 뒤에 어떠한 전치사와 언어관계를 이루느냐 아니면 Y 위치의 PP 내의 명사구가 어떠한 전치사와 언어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c. E/S/P-조건 중 E-조건만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어긴다.
- d. 이 때의 but은 ‘제외’ 의미의 부사에 해당된다.<sup>24</sup>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39) a. And there would be no memories ***but for*** adjectives. Memory is made of adjectives. (COCA/1/1991/MAG/NewRepublic)
- b. The words summon strong <memories *for*> people who went through them. (COCA/3/1993/NEWS/WashPost)
- (40) a. Without faith, there is no hope ***but <for what the government will do for/to us>***.<sup>25</sup>

<sup>24</sup> but 이전의 명사와 but 이후의 전치사가 서로 언어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통사 범주는 수의적 요소로서 부사에 해당된다.

<sup>25</sup> <http://www.firstthings.com/onthesquare/2010/06/the-realism-of-religious-freedom>

- b. The <hope for> what the government will do ...
- c. There is a <hope for> Jesus’ return.
- (41) a. Why? Like I was a slave to my past, with no hope but of repeating their failure? I kept walking. (COCA/1/1997/FIC/Analog)
- b. in the <hope of> getting a job
- (42) a. There is no dialogue but with/\*for myself. (COCA/1/2002/FIC/FeministStud)
- b. There would be no <dialogue with/\*for> criminals.
- (43) a. The third step is, to love nothing but for God’s sake, in Him, and for Him, and to Him. (<http://www.scripturestudies.com/Vol8/H1/top.html>)
- b. We are nothing but by the law. (Napoleon)

이 <X ‘But-Prep’ Y> 구조의 특징은 이 구조가 ‘제외’ 의미의 문장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X 위치의 중심명사와 Y 위치의 전치사 간이나 아니면 Y 위치에 나타난 PP 구조에서 전치사와 그 보충어 간에 긴밀한 의미적 관계나 통사적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 (39-41) 예문에서 보면 ‘(no ~) but’ 이 나타나지 않는 ‘비제외’ 의미의 문장(즉, (39b), (40b), (40c), (41b))에서 관찰해보면 추억이나 희망의 대상을 명사화하여 영어로 언급할 때 전치사 for가 요구되면서 언어관계를 이룬다.<sup>26</sup> 그러나 만일 hope라는 단어가 ‘희망’의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의 대상을 명사화하여 영어로 말할 때는 of와 공기됨을 우리는 안다. (42)에서는 ‘dialogue’라는 단어는 어휘목록에 with라는 전치사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 (43)에서는 (41-42)에서와는 달리 그러한 언어관계/보충관계가 Y 위치에 한하여 존재할 뿐 여전히 ‘God’s sake’는 전치사 for와 함께, ‘the law’ 라는 NP는 by와 언어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용적인 의미를 생성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언어관계와 같은 통사적 특징이 ‘제외’ 의미의 구조로 전환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3.7 구조유형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but-전치사’ 로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조를 but과 전치사 중 출현이 무표적인 for의 문법적 지위, 수정된 E/S/P-조건 적용 여부, for의 생략

<sup>26</sup> COCA를 이용해서 but 뒤에 올 전치사 for와 언어관계를 이루는 명사를 조사하면 choice, alternative, option, purpose, hope, thought, room, timberlands, injuries 등의 명사가 나타난다.

여부 등 여러 기준을 토대로 하여 그 변별적 특징을 구분해 보았다. 다음은 각 유형별 예시와 개별적인 변별적 특징을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44) Type 1: <X ‘But-(For)’ Y>

There was no noise **but (for)** the sullen and persistent whirr of the ceiling fans>.

Type 2: <X ‘But-For1’ Y>

We have no hope **but for** things to stay as they are.

Type 3: <X ‘But-For2’ Y>

- 1) The work was now complete, **but for** a final coat of paint.
- 2) I would have been in real trouble **but for** your help.

Type 4: <X ‘But-(Prep)’ Y>

- 1) All this pain and suffering is for no one **but (for)** you.
- 2) You can even offer the best of them permanent part-time jobs, again with no benefits **but (with)** a raise in pay.

Type 5: <X ‘But-Prep’ Y>

- 1) And there would be no memories but for adjectives. Memory is made of adjectives.
- 2) Why? Like I was a slave to my past, with no hope but of repeating their failure? I kept walking.
- 3) There is no dialogue but with myself.

표 1. <X But-For Y> 구조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

	<X + ‘But-전치사’ + Y>				
	But-(For)	But-For1	But-For2	But-(Prep)	But-Prep
1. 출현 전치사의 종류	For 만			다양함	
2. 전치사의 출현 여부	수의적	필수적		수의적	필수적
3. But의 문법적 지위	상관접속사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상관 접속사	제외 부사
4. But의 의미	“with the exception of”		1) “Were it not for” 2) ‘with the exception of”	“with the exception of”	

5. 전치사의 문법적 지위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보문소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Y와 언어관계를 이루는) 전치사	(X나 Y와 언어관계를 이루는) 전치사
6. ‘But-전치사’의 문법적 지위	1) (-for) 상관접속사 2) (+for) 복합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상관 접속사 + 보문소>	복합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상관 접속사 + 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부사 + 전치사>
7. ‘but-전치사’의 이동	불가		‘가정’의 의미로는 가능	불가	
8. 수정 E/S/P-조건	1) (-for) E/S/P-조건 모두 지킴 2) (+for): E/S-조건 만 지킴	모두 지킴	무시	모두 지킴	E-조건 만 지킴

위 5가지 <X + ‘But-전치사’ + Y> 제외구조의 유형에서, 먼저 전치사의 종류와 출현 여부를 기초로 하여 5가지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but’ 자체의 문법적 지위는 상관접속사, 복합전치사의 일부, 부사라는 세 유형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but’ 자체의 의미는 모두 ‘제외’의 의미를 지니지만 특히 <X But-For Y> 구조에서는 ‘가정’(즉, ‘~없(었)다면’)의 의미도 발생하였다. But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상관접속사이거나 복합전치사의 일부 또는 부사로 나타났다. 한편 but과 함께 나타난 전치사 중 출현으로 보아 무표적인 ‘for’의 문법적 지위를 보면, 단일 전치사나 복합전치사의 일부 또는 (for-)보문소로 확인되었다. ‘But for’ 전체의 문법적 지위는 복합전치사구 아니면 우연한 연쇄체로 확인되었는데 후자로서는 <상관접속사 + 보문소/전치사>나 <제외부사 + 전치사>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대체로 문헌에서 제외구문이 대체로 <X But Y> 구조와 <X ‘But-For2’ Y> 구조 두 종류로만 구분되어 있었는데 분석 결과 for만 취하는 제외구문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전치사가 나타나는 제외구문도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t-for의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제3유형인 ‘But-For2’ 구조 중 ‘가정’의 의미를 보유하는 구조만이 문두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과제로 던져진 질문 중 나머지 질문은 거의 위 단락에서 대답을 제공한 셈이지만 그 첫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이 질문은 <X But Y> 제외구문의 생성에 관여했던 Kim(2005)의 세 가지 E/S/P-조건이 ‘but + 전치사’의 출현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즉,

E/S/P-조건 3 가지 모두 지키는 경우에만 *but*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X But Y> 제외구문을 허용하며 이를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는 전치사를 수반하여 <X ‘But + 전치사’ Y>를 취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전치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제3유형(‘But-For2’)과 제5유형(‘But-Prep’)의 제외구문은 3가지 E/S/P-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어겼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두 제외구문 간의 구분에 이 세 E/S/P-조건이 유효하지 않는 듯 했다. 한 가지는 전치사가 *but* 뒤에 정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체상의 이유로 나타날 수도 있는 두 유형 즉, 제1유형(‘But-(For)’)과 제4유형(‘But-(Prep)’)에서 P-조건이 문제가 되는 듯 했다. 즉, 그 문제는 *but* 다음에 전치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따른 병렬관계 위반이었다. 그러나 전치사가 나타나면 표면상 P-조건을 위배하지는 이 전치사의 출현은 제외구문의 본질적인 제약이 아니라 단순히 문미비중원리나 병렬관계 등과 같은 문체상의 이유로만 수의적으로 첨가될 뿐 본질적으로는 뒤에 전치사가 뒤따르지 않고 *but*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X But Y> 제외구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체상의 이유로 *but* 다음에 전치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난 제외구문의 유형을 제외한다면, 3가지 E/S/P-조건은 전치사 발생이 필수적인 제외구문과 전치사 없이 *but* 단독으로 나타나는 제외구문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한 경우는 전치사 *for*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문소 행세를 하여 E/S/P-조건을 모두 지키게 되는 제2유형(‘But-For1’)의 경우였다. 이 경우는 *for*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NP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제 3, 5유형의 제거구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이며 보문소 *for*와 의미상의 주어 NP가 함께 나타난다 하더라도 P-조건이 의미적으로 적용되어 여전히 *but*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X But Y> 제외구문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E/S/P-조건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사적 병렬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전치사의 복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P-조건을 수정한 (33)의 ‘수정 E/S/P-조건’을 활용하면, 제외구조에서 *but* 다음에 전치사의 출현 여부와 성격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sup>27</sup> 첫째, ‘수정된’ E/S/P-조

<sup>27</sup> 이러한 제안이 암시하는 내용 중 하나는 ‘제외’의 상관접속사를 ‘역접’의 등위접속사와 구분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i) You may not use the Site for anything but for personal, non-commercial purposes.  
(<http://www.audicus.com/pages/terms-of-service>)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제1유형 ‘But-(For)’구조에 해당되어 “~ 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용하면 안됩니다.”라고 해석되어 당연히 상관접속사로 분석이 되겠지만 이 *but*이 ‘not ~ (,) but’에 해당하는 ‘역접’의 의미(즉, “그러나 ~ 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것입니다.”)를 갖는 등위접속사로 사용된 것으로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즉, 후자의 경우라면 *but* 앞에 나타나야 할

전 3가지 모두를 지키는 문장에서는 <X But Y> 제외구조나 <X ‘But-(전치사)’ Y> 제외구조를 사용하고 이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문장에서는 but 다음에 전치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X ‘But-전치사’ Y> 제외구조를 사용한다. 둘째, <X ‘But-전치사’ Y> 제외구조에서 출현하는 전치사의 선택은 전치사가 X나 Y와 언어관계를 맺고 있으나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며 언어관계를 이루는 경우에는 for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치사가 출현하나 그 외의 경우(예: 복합전치사의 일부, 보문소)에는 반드시 for로만 선택이 된다. 셋째, <X ‘But-(전치사)’ Y> 제외구조에서 무표(unmarked)형인 <X But Y> 제외구조의 발생 외에도 전치사가 첨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문미비중원리(EWP)나 X-Y간의 병렬관계에 기인된다.

#### 4. 결론

Kim(2005)은 ‘제외’ 의미의 ‘but-구문’을 분열문의 형식을 빌어 생성되는 상관 접속사로 보았으며 이러한 구문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는 ‘3가지 제약이 수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but이 등위접속사와는 달리 상관접속사가 되기 위하여 첫째로 ‘X but Y’ 구조에서 X 위치에 반드시 배서항목의 단어(all, no(body), every, any 등)들이 나타나야 하며, ‘제외’의 의미를 가지고 구조적으로는 분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관접속사 but은 배서(E-)조건, 의미(S-)조건, 병렬(P-)조건이라는 3가지 조건(즉, E/S/P-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but-구문’의 발생에 관여하는 E/S/P-조건이 for 등의 전치사를 수반하는 구문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치사를 수반하는 <X ‘But + 전치사’ Y> 제외구조의 유형과 쓰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의 출현 여부와 출현 전치사의 종류 결정 여부, but의 의미와 문법적 지위, 출현 전치사의 문법적 지위, ‘But-전치사’의 문법적 지위, 수정된 E/S/P-조건의 상기 제외구조에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과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로 ‘X But Y’ 상관접속사 구문에 전치사 for를 수의적으로 취하는 유형으로 X 위치에 나타나는 배서항목은 거의 no를 수반하는 NP이며, for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Kim(2005)이 제안한 E/S/P-조건 3가지를 모두 지키는 <X ‘But-(For)’ Y> 구조이다. 또한 구성소 Y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문미나 문중에 comma를 수반할 경우 for를 수의적으로 취하며 for의 출현여부에 따라 but의 문법지위와

---

comma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서 but과 for 사이에 “use it”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었다고 보면 ‘역접’의 등위접속사가 될 것이다.

‘수정’ E/S/P-조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

둘째의 <X ‘But-For1’ Y> 구조 유형은 but 다음에 to-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 NP를 포함하는 ‘for NP to 보문절’이 오는 경우로 X 위치의 명사와 Y 위치의 ‘for-to 보문절’ 간에 E/S/P-조건이 유지되며 but은 여전히 상관접속사이고 만약에 의미상 주어인 NP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문소 for도 나타나지 않는다.

<X ‘But-For2’ Y> 구조 형태로 명명된 셋째 유형은 <X ‘But-For1’ Y> 구조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for가 항상 수반되지만 이 구조유형과는 달리 but이 단지 for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전치사로 간주되며 항상 E/S/P-조건을 모두 여기는 경우로 but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X But Y> 구조 형태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가정’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유일하게 문두로 이동이 가능하며, ‘제외’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except for’와 교체 사용가능한 유형이다.

넷째의 <X ‘But-(Prep)’ Y> 구조 유형은 표면상으로 제1유형인 <X ‘But-(For)’ Y>의 구조 유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전치사의 출현과 통사적 P-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Y 위치에 나타나는 전치사의 출현은 수의적이고 for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며 만일 전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Kim(2005)의 E/S/P-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만, 만약에 전치사가 나타난다면 P-조건에서 적용되던 X의 범주를 단순히 ‘X’에서 ‘X 나 X를 보충어로 취하는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가 되도록 하는 취지로 P-조건을 수정하였다.

마지막 유형인 <X ‘But-Prep’ Y> 구조 유형은 전치사의 출현이 의무적인 제2/3유형 <X ‘But-For1/2’ Y>구조 유형과는 달리 but 다음에 오는 전치사가 for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출현 전치사의 선택은 전치사 전, 후에 나타나는 명사 X와 Y 간의 언어관계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이 구조는 E/S/P-조건 중 E조건만 지키는 경우이며, 이 때의 but은 ‘제외’의 의미의 부사로, for는 전치사로 확인되었다.

등위접속사 but과 ‘제외’의 상관접속사를 구분하기 위해 제안된 Kim(2005)의 E/S/P-조건을 (33c)와 같은 성격으로 수정함으로써 이 조건은 결국 <X But Y> 제외구조나 <X ‘But-전치사’ Y> 간의 구분에 활용이 가능했다. 즉, <X But Y> 제외구조나 <X ‘But-(전치사)’ Y> 제외구조의 출현은 ‘수정된’ E/S/P-조건 3가지 모두를 지키는 경우에 가능한 반면에, but 다음에 for 등 전치사의 출현이 필수적인 <X ‘But-전치사’ Y>의 출현은 반드시 ‘수정된’ E/S/P-조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여기는 경우에 가능했다.

## 참고문헌

- 김두식. 2004. 영어 전치사/접속사 BUT의 성격 재고. 『영미어문학연구』 20(1): 67-98.
- 안병길. 2012. 영어 ‘제의’의미표현의 발생 환경에 대하여. 『현대영미어문학』 30(3): 253-277.
- 이익환, 안승신. 2003. 『영어학 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Akmajian, A. 1970. On deriving cleft sentences from pseudo-cleft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1: 149-168.
- Delahunty, G. 1984. The analysis of English cleft sentences. *Linguistic Analysis* 13: 63-113.
-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Gilman, E. Ward (ed.). 1989. *Webster's Dictionary of English Usage*.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Inc.
- Gleitman, Lila R. 1969. Coordinating Conjunctions in English. In David A. Reibel, and Sanford A.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Readings in Transformational Grammar*, 80-112. New Jersey: Prentice-Hall.
- Hirschberg, Julia. 1991. *A theory of scalar implicature*. New York: Garland. [An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dissertation, 1985.]
- Kim, Doo-Shick. 2005. An Analysis of *But/Other Than*-Correlatives as ‘But/Than’ Clefts. *Language Research* 41(4): 880-907.
- Koutsoudas, Andreas. 1971. Gapping, Conjunction Reduction, and Coordinate Deletion. *Foundations of Language* 7: 337-386.
- Patrick, Stanley R., Paul M. Postal, and Peter S. Rosenbaum. 1969. On Coordination Reduction and Sentence Analysis. *Computational Linguistics* 12(4): 223-234.
- Swan, Michael. 1995. *Practical English Usage* (new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wan, Michael.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안병길

(660-758)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영어학과  
E-mail: byongki08@gntech.ac.kr

### 김두식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kimdsk@gnu.ac.kr

접수일자: 2013. 07. 13  
수정일자: 2013. 08. 20  
게재일자: 2013. 08. 28